

# 신명난 악극 무대, 5·18 아픔을 노래하다

## 문화예술로 만나는 '오월'

### ⑤ 오월극 '애꾸눈 광대'

올해부터 6명 출연 악극으로 변신

17~18일 빛고을 아트스페이스

26~27일 서울시청 다스락홀

9월까지 넷째 화·수 상설 공연



오월극 '애꾸눈 광대'는 1980년 5·18 당시 현장에서 투쟁하다 한쪽 눈을 잃은 이자현씨의 자전적 이야기를 담은 작품이다. 초연은 지난 2012년. 이씨는 연극인 신동호씨와 손을 잡고 일인극 '애꾸눈 광대'를 제작했다. 연기를 체계적으로 배운 적은 없지만 직접 무대에 올라 오월 이야기를 절절하게 풀어냈다. 하지만 주인공 '광대'의 개인기 위주극이 흘러가면서 완성도 면에서는 아쉬움도 남겼다.

이후 작품은 버전 업 과정을 거쳤다. 지난해에는 양태훈 극단 일·아리 대표가 연출을 맡고, 극중 주인공의 자아를 표현하는 두명의 남녀를 투입해 이야기를 더욱 풍성하게 했다.

'애꾸눈 광대'가 올해 또 한번 변신을 시도했다. 다양한 연령대의 관객들이 좀 더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악

극' 형식을 도입했다. 배우들의 연기와 노래, 악기 연주 등이 어우러진 작품이다. 주인공 이씨와 함께 그의 젊은 시절 역을 맡은 연극배우 정이형씨를 비롯해 정일행, 강선영, 최유정씨 등 전문 연극배우 5명이 합류하면서 극의 구성이 탄탄해졌다.

'애꾸눈 광대'는 '아들'을 찾는 광대의 이야기다. 작품은 이자현씨가 계엄군의 폭력으로 한쪽 눈을 잃게 되면 서부터 이야기를 풀어간다. 주인공은 살아남았다는 부채의식으로 5월 진상규명운동과 민주화를 위해 온 몸을 던진다. 결국, 가정은 파탄나고 주인공은 가출한 아들을 찾아 광대가 돼 전국을 떠돈다.

연출은 극단 크리에이티브 드라마 대표 이행원씨가 맡았다. 이씨는 "5월 광주를 유년시절 직접 겪은 세대로 광주의 아픔을 연극으로 작업하는 것에 대해 부담감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악극 형식을 도입, 사람들이 광주와 오월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올해 첫 공연은 오는 17~18일 오후 3시 빛고을아트스페이스 3층 공연장에서 열린다. 26~27일에는 서울시청 시민청 다스락홀에서 공연을 진행하며 하반기에는 학교 등에서 찾아가는 공연도 진행한다. 6일부터 9일까지는 매일 넷째주 화요일과 수요일(오후 7시30분) 빛고을아트스페이스에서 상설 공연될 예정이다.

'애꾸눈 광대'는 지금까지 광주는 물론 창원, 공주, 제주, 서울, 대구, 안산 등 국내를 비롯해 지난해에는 일본 오사카에서도 공연하는 등 지금까지 70여회 무대에 올랐다. 무료 공연. 문의 062-670-7943.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내면 텃밭의 씨앗 성찰...김수진 개인전

20일까지...로터스갤러리

2016 로터스갤러리 청년신인작가 공모에 선정된 김수진 작가가 '씨앗'을 주제로 20일까지 개인전을 연다.

김 작가는 작업세계를 여는 의미로 주제를 '씨앗'으로 정했다. 자아성찰 의미를 담아 그동안 작업해 온 작품 20여 점을 선보인다.

작품은 극사실적인 묘사가 특징이다. 작품 '염원'은 두 손 모아 기도하는 노파를 사실적으로 그린 반면 배경은 풍경, 탑, 북, 용을 배치하며 추상적으로 표현했다. '비움'은 산길을 홀로 걷는 어느 여자 모습을 통해 '나는 누구이며,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라는 근원적 질문을 던진다.

김씨는 "이번 전시를 통해 바쁜 일상 속에서 사람들이 내면 텃밭에 심어진 씨앗을 다시 생각하고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씨는 전남대 미술대학을 졸업하고



'염원'

동 대학원 석사과정을 수료했다. 광주국제현대미술전(2015), 삶과 예술 그리고 동행전(2015), 코리아 아트페스타(2016) 등에 참여했다. 문의 062-383-0108.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 슈퍼맨·배트맨...어릴적 TV속 영웅들

광주신세계갤러리 6월 14일까지 '모니터키즈전'

슈퍼맨, 배트맨 등 TV 속 영웅들을 만날 수 있는 전시가 열린다.

광주신세계갤러리가 6월14일까지 '모니터키즈'전을 연다. '모니터키즈'란 TV, 컴퓨터 등 모니터와 함께 자라온 세대를 의미한다. 이번 전시는 1960년대생부터 1980년대생까지 모니터와 친숙한 작가 12명이 참여해 설치, 회화, 조소 작품 40여점을 선보인다.

작가들은 1980년대 애니메이션 주인공 공부터 현재 영화 속 히어로들까지 가상 존재들을 소재로 현대인 자아에 대해 이야기한다.

스틸, 스테인레스, 알루미늄 등 철재 소재를 활용해 팝아트 조각을 선보이고 있는 고근호 작가는 '영웅-터미네이터'를 출품했다. 인상 스타일, 오토바이, 샷건 등 영화 '터미네이터' 주인공 특징이 인상적이다. 총구에 피어오른 연기가 꽃형상인 점이 재미있다.

작가들은 헬기, 마키마우스, 마징가 등 친숙한 캐릭터를 소재로 사용하며 모니터 속 세상은 이미 우리 현실에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던진



김형연 작 'He Can Fly Now'

다. 문의 062-360-1271.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 광주지하철 문화전당역 5·18홍보관 리모델링 재개장

### 음악연주 함께하세요...빨간 의자 프로젝트



15일 문화전당역 5·18기념홍보관을 방문한 관람객들이 '빨간 의자 프로젝트' 공연을 감상하고 있다. 이날 공연은 문지환 광주시립교향악단이 바순 연주를 들려줬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지하철 문화전당역 지하 2층에는 5·18기념홍보관(이하 홍보관)이 위치하고 있다. 광주지하철역 중에서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곳이지만 지금까지는 발걸음을 멈추고 자세히 둘러보는 사람이 드물었다.

최근 리모델링을 마친 홍보관에는 빨간 의자가 놓여 있어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5·18기념재단이 진행하는 '빨간 의자 프로젝트'다.

이 프로젝트는 누구나 의자에 앉아 음악을 연주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음악을 통해 시민 관심을 유도하고 5·18을 소개한다는 방침이다.

재단은 '오월로 가는 길목'을 주제로 홍보관을 새로 꾸민 후 지난 12일 재개장했다. 단순히 지나치며 눈으로만 보고가는 공간보다는 각종 볼거리를 마련해 머물고 갈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다. '빨간 의자 프로젝트'는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대표 프로그램이다. 오픈식인 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 광주시립교향악단 단원 등 전문 연주자가 참여한 시범 운영이 이어졌다. 앞으로는 악기를 다룰 수 있는 일반 시민을 모집해 비정기적으로 공연을 이어갈 예정이다.

그밖에 민중화가 홍성담씨가 그린 판화작품 '대동세상'을 확대 출력해 부착했고, 주홍 작가가 제작한 5·18 주제 샌드 애니메이션 영상을 상영하고 있다. 1980년 5월 광주 촉박사건도 새롭게 배치했다. 분수대에 태극기를 걸고 있는 시민군 등 당시 참상을 알리는 각종 사진을 볼 수 있다. 문의 062-360-0518.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명품 박물관 탄생!!  
세계 70여개국에서 수집한 조각·장식 6,000여점 전시

**세계 조각·장식 박물관**  
World Sculpture·Ornament Museum

☎(062) 222-0072, 226-5800 일요일 휴관  
(구, 카톨릭센터 뒤 금남문선 1층)

**아프리카 소나조각**  
앙코르 전시회

400여점 전시

예술 꿈나무들의 큰잔치

# 6 호남예술제

전통의 종합예술대전·전국대회

2016. 4. 20(수) ~ 5. 26(목)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남부대학교, 광주패밀리랜드 및 우치동물원

신청기간: 2016년 5월 16일(월) ~ 5월 18일(수)

미술·작문 부문

- 참가자격: 국내에 거주하는 전국 초·중·고등학생 부문 자격에 해당하는 자, 일부부문 성인
- 경연기간: 4월 20일(수) ~ 5월 26일(목)
- 참가부문: 음악, 무용, 국악, 미술, 작문(자세한 내용은 대회요강 참조)
- 접수방법: 방문신청: 광주일보사 문화사업국(062,220,0541) / 평 일: 09:00~18:00 (토·일요일 제외)  
우편신청: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사 16층 호남예술제 담당자 앞(우61482)  
인터넷신청: http://art.kjmedia.co.kr (온라인 카드결제 가능)
- 경연일정: 대회요강 및 홈페이지 참조  
확정된 일정 및 장소는 2016년 4월 18일(월) 호남예술제홈페이지를 통하여 발표
- 시상: 우수학교상·우수지도상  
국회(의장상(예정))·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예정)  
개인-최고상·금상·은상·동상·정려상  
단체-최고상·금상·은상·동상
- 문의: 062,220,0541

주최: **광주일보·(사)아시아문화** 후원: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http://art.kjmedia.co.kr